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산과 울산지역 '2012년 상반기 우수중소기업인상 및 우수 모범 기술·기능인상' 수상자로 14명을 최종 선정해 시상한다.

우수중소기업인상에는 경영혁신, 기술혁신, 창업·벤처, 수출, 소상공 등 5개 부문에서 10개사가 선정됐다.

△경영혁신 부문에는 올텍(부산 사상구) 하병욱 대표, (주)태흥테크(부산 기장군) 전진수 대표 △기술 혁신 부문에는 제우스유화공업(주)(부산 사상구) 이선도 대표, (주)우정티.알.비(울산 울주군) 유찬희 대표 △창업·벤처 부문에는 (주)아티스(울산 중구) 배선일 대표, (주)하이텍정보시스템(부산 북구) 최명학 대표 △수출 부문에는 (주)덕화푸드(부산 사하구) 장석준 대표, (주)메카스(부산 사상구) 김영주 대표 △소상공인 부문에는 대화상사(부산 동구) 정병순 대표, 동양슈퍼(부산 연제구) 서자임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꾸준한 연구개발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 기술·기능인에는 조선선재온산(주)(울산 울주군) 정광호 차장, (주)피알(울산 북구) 김용주 과장, 장우기계(부산 기장군) 정철민 과장, (주)은성(부산 강서구) 김민성 부장 등 4명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대성 기자